

여야 5당 대표 “국회, 밀린 숙제할 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초월회에서 여야 5당 대표는 3월 국회에서 민생 입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낮 12시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초월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짜투리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이 예정돼 있다”며 “대표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국당이 국회 등원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대단히 잘한 일”이라며 “여러 가지 민생 입법을 잘 다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바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국회가 두 달이나 문을 열지 않았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만나면서 반성할 게 많다”라며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가 머리를 맞대는 수단은 대화”라며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도 “3월 국회는 문연 것이 의미가 아니라 들어가서 밀린 숙제를 해야 할 때”라며 “이전

문희상 “개혁 시급·민생 입법 예정돼 있어” 초월회 첫 참석 황 “생산적 국회 위해 최선을 여야 3당, 민주·한국당 겨냥 “입장 밝혀라”

국회와는 다르게 속도를 2~3배 올려도 시원찮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런저런 정성이 모여서 국회를 다시 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생을 챙기고 필요한 것을 입법화해 나가는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각 당에도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들은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초월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확실하게 안을 가지고 내놓을 것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지금 300석을 가지고 몇 석으로 나누는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준연동형이나 연동형이나 이야기 나오는데 (안을) 확실하게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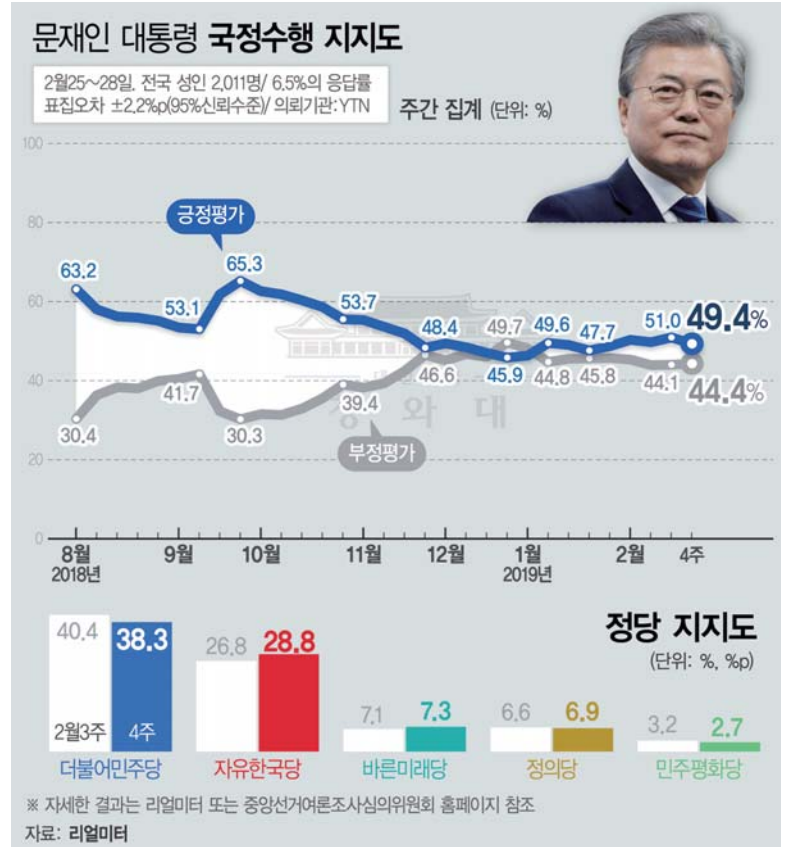
이어 “선거제도 개혁과 (패키지로) 무엇을 할 것인지, 여야 간 합의도 안 된 것들을 걸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것 국민적 합의가 된 것을 걸 것인지, 무엇을 걸 것인지를 이야기했다”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도 “중요한 것은 시한”이라며 “10일까지 한국당이 안을 못 내놓는다면 여야가 신속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속처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걸어놓고 한국당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가 이번 주 말까지 투 트랙으로 굴러가야 한다”라며 “첫 번째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명확한 당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또 하나의 트랙은 4당이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4당 단일안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같은 여야 3당의 주된 “지금 여러 검토들이 있다”라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文 지지율, 49.4%...전주보다 1.6%p↓

리얼미터 “韓 전당대회 효과, 與 ‘20대 폼페 논란’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1.6%p 내린 49.4%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5~28일 서울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상대로 조사해 4일 공개한 2월 4주차 주간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6.5%)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4%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가는 지난주 대비 0.3%p 오른 44.4%(매우 잘못함 29.2%, 잘못하는 편 15.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p 증가한 6.2%였다. 긍정·부정평가 간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5%p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번 하락세에 대해 “한국당의 전당대회 효과로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등 보수성향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고 일부 여당 간담회 논란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15.3%p, 45.0%→29.7%, 부정평가 64.5%), 광주·전라(▼4.3%p, 70.5%→66.2%, 부정평가 24.6%), 경기·인천(▼1.9%p, 54.1%→52.2%, 부정평가 41.8%), 서울(▼1.0%p, 50.7%→49.7%, 부정평가 44.5%)에서 하락세를 이끌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3.5%p, 46.4%→49.9%, 부정평가 45.1%)

과 부산·울산·경남(▲2.3%p, 42.5%→44.8%, 부정평가 49.8%)에서는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5.1%p, 40.7%→35.6%, 부정평가 56.5%), 30대(▼2.9%p, 66.2%→63.3%, 부정평가 33.4%)에서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2.1%p 대폭 하락한 38.3%를 기록했다. 20대 발언 논란으로 지난 3주 동안의 원만한 흐름이 멈추고 다시 30%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구·경북(▼11.4%p, 33.1%→21.7%)과 충청권(▼6.9%p, 42.2%→35.3%), 경기·무엇이든 물어보세요(▼5.8%p, 51.2%→45.4%)와 30대, 60대 이상,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 “전당대회 효과와 더불어, 민주당의 ‘20대 발언’ 논란과 정당 간 ‘폼페 논란’의 반사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바른미래당(7.3%), 정의당(6.9%), 민주평화당(2.7%)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대비 2%p 오른 28.8%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경북(▲13.2%p, 38.0%→51.2%)과 서울, 충청권, 20대(▲5.8%p, 15.9%→21.7%)와 30대, 60대 이상,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 “전당대회 효과와 더불어, 민주당의 ‘20대 발언’ 논란과 정당 간 ‘폼페 논란’의 반사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바른미래당(7.3%), 정의당(6.9%), 민주평화당(2.7%)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황교안호’ 첫 당직 인선...사무총장 한선교·비서실장 이현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면서 ‘황교안호’의 시동을 걸었다. 통합을 강조했던 황 대표가 오히려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며 당평 인사와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날 28일 한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할 바 있다.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던 17대 국회에서 대변인을 지내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김무성 의원 보좌관 출신이긴 하나, 17대 대선후보

민경욱·전희경 의원은 당 대변인 역할을 맡는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전 의원은 당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중앙연수원장에는 박근혜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초선의 정종섭 의원을 임명했다. 발전박계로 분류되는 이명수 의원은 인재영입 위원장에, 송희경 의원은 중앙여성 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세연 의원이 유력시되는 것으로 알려진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 인사는 발표되지 않았다. 절차상 여의도연구원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걱정하는 안보, 경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국가관, 공직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당에) 많다”라며 “특별히 역량을 갖추는데 있어 적인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당직을 같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비박(비박근혜)계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비박계가 무슨 말씀인가”라며 “비박계 이런 것 없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계신다”라고 답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전략기획부총장 추경호 등 범친박계 인사 포진

김세연 유력,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사회 의결해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에 4선의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의 이현승 의원을 임명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

경선 때 박근혜 후보 유세지원단 수혈실장 등을 지냈다. 초선의 추경호 의원은 전략기획 부총장에 임명됐다. 추 의원은 황 대표가 국무총리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인사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